

2020학년도 3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5	2	5	3	1	4	2	5	1
6	5	7	3	8	4	9	1	10	1
11	5	12	3	13	4	14	4	15	2
16	2	17	3	18	2	19	3	20	3
21	5	22	4	23	1	24	4	25	4
26	4	27	3	28	2	29	1	30	5
31	3	32	2	33	5	34	3	35	5
36	2	37	4	38	1	39	2	40	2
41	1	42	4	43	1	44	4	45	3

해설

1. [출제의도] 발표의 구성과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발표자는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에게 연습을 많이 해 보라고 당부하고 있지만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다음 동아리 시간을 언급하고 있지만 다음 시간의 내용을 예고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발표를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수동 설정으로 빛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발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② '(나)를 가리키'거나 '뛰는 듯한 동작' 등의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③ 청중에게 '빈칸'에 들어갈 답을 묻거나 사진을 두고 질문을 하는 등 질문을 하며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④ '점프 샷'을 언급하며 '서터 속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출제의도] 발표의 자료 활용 의도를 파악한다.

<자료 2>는 '피사체의 순간적 이미지'를 담은 사례가 맞지만, <자료 3>에서는 피사체의 포착 방법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또한 조리개와 서터 속도의 조절은 빛의 노출량 확보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사체의 포착과 비교하여 설명할 내용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자료 1>을 활용해 '지난 시간에 설명한 조리개의 원리'에 대한 청중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 ② 발표자는 '피사체의 순간적인 이미지'를 잘 포착한 사진의 사례로 <자료 2>를 제시했다. ③ 발표자는 <자료 3>을 제시하여 조리개 구경을 축소하거나 서터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식으로 전체 빛의 노출량을 조절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발표자는 <자료 1>을 통해 조리개 조절로 '빛의 양'과 '심도'를 결정할 수 있음을, <자료 2>를 통해 서터 속도를 빠르게 하여 '움직이는 피사체의 순간적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출제의도] 청중의 듣기 과정과 반응을 파악한다.

'학생'은 이 발표의 내용이 원리에 치우쳐 있음을 깨닫고 '상황별로 적절한 서터 속도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지 않았음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학생'은 '스마트폰 카메라의 수동 설정'을 열어 보며 들은 내용을 확인하고 있지만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가 믿을만한 것인지 따져 보지는 않고 있다. ③ '학생'은 발표에서 '잘 몰랐던 원리를 설명해 준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이 알게 된 내용을 필요에 따라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④ '학생'은 자신이 이해한 것을 토대로 '스마트폰'을 활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들은 내용이 타당한지 점검하지는 않고 있다. ⑤ '학생'은 자신이 들은 발표에서 아쉬운 점을 떠올리고 있을 뿐 발표의 내용 구성 방식에 대해 정리하지는 않고 있다.

4. [출제의도] 인터뷰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학생이 자기 경험을 언급하여 인터뷰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인터뷰 시작에서 학생은 '△△△님의 음악 활동을 교지 특집호에 실으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찾아온 목적을 밝히고 있다. ③ 학생은 '담임' 선생님을 인터뷰 대상과 공유하는 요소로 언급하여 친밀감을 형성하려 한다. ④ 학생은 길거리 공연 시작 계기에 관한 가수의 답변을 듣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길거리 공연을 통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말씀이시죠?'로 답변의 일부를 재진술하여 묻고 있다. 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를 통해 학생이 가수의 답변을 듣고 구체적 사례가 있는지 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출제의도] 인터뷰 기사의 글쓰기 방법을 파악한다.

인터뷰에서 다룬 내용을 기사 도입부를 작성할 때 활용하지 않은 경우로 기사에서 프로젝트 계기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② 인터뷰에서 가수는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즉흥과 소통을 테마로 하는 길거리 공연'으로 소개하고 있다. 학생은 가수가 한 말 중 일부인 '즉흥과 소통'을 글의 부제에 활용하여 프로젝트의 성격을 전달하고 있다. ③ 인터뷰 시기와 장소를 언급하였고, '화기에애했다.'와 같이 현장 분위기도 전달하고 있다. ④ 인터뷰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콘서트 3초 매진', '가요대상 5관왕'의 정보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⑤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한 깜짝 놀랄 만한 선물도 있다.'를 통해 인터뷰에서 알게 된 정보를 암시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6. [출제의도] 글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을 파악한다.

(가)는 달리기를 하며 깨달은 점인 무리하지 않고 자신에 맞는 속도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 태도 및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서술하였고, (나)는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하는 것이 더 큰 성취감을 준다는 생각을 달리기를 한 경험 전후로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오답풀이] ① (가)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나)는 묻고 답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② (가)와 (나) 모두 달리기를 했던 경험에서 느낀 점을 전달하고 있지만 다양한 경험을 나열하지 않았다. ③ (가)는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경험과 성찰의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나)는 시간의 흐름이 일부 나타나지만 성찰 전후의 생각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가)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도입부가 아닌 글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였고, (나)는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을 글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하였다.

7. [출제의도]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이해한다.

㉔에서는 '학생 2'의 글에서 경험과 느낌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글의 일부를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㉔에서는 '학생 1'이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느낀 점에 대해서 '때로는 한계를 넘을 필요가 있다.'는 자신의 의견을 언급하고 있다. ② ㉔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리해 본 적이 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학생 1'의 글에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㉔에서는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갖게 된 근거로 '학생 2'의 글에 나타난 경험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⑤ ㉔에서는 같은 글을 읽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이야기하면서 글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행위에 대해 긍정적

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8. [출제의도] 작문을 위해 떠올린 생각을 파악한다.

초고 4문단의 '이미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한 여러 좋은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구청 사업을 알 수 있지만, 학생의 견지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나오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 □□□입니다.'에서 인사말을 쓰고 견지의 주체를 밝혔다. ② 2문단에 나오는 '최근 키오스크(kiosk, 무인 정보 단말기)를 ~ 뵙게 됩니다.'에서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들고 있다. ③ 2문단에 나오는 '인근 지역과 ~ 많이 사십니다.'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언급하고 있다. ⑤ 5문단에 나오는 '앞으로 우리 ~ 늘어날 것입니다.'에서 사회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9. [출제의도] 초고 수정을 위한 자료 활용 방안을 파악한다.

<보기>의 (가)는 정보통신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있어 고령층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 상황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는 고령층을 위한 교육을 할 때 소그룹, 일대일 교육, 현장에 나가 직접 체험하게 하는 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점이 드러나 있어 고령층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을 건의하는 초고의 내용 중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나)에는 문제를 분류하여 드러내는 내용이나 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를 활용하여 문제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는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시된 자료이므로 (나)를 활용하여 문제의 실태를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는 초고에서 제시한 해결 방안의 우선순위를 따질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가)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들 간의 우선순위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나)는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나)를 활용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는 문제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나)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출제의도]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을 파악한다.

'계시다'는 '있다'의 높임말이다. 그러나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가 화자에게 사회적인 상위자로 인식될 때 그와 관련된 동작이나 상태 기술에 결합하여 그것이 상위자와 관련됨을 나타낼 때는, '계시다'를 쓰지 않는다. 따라서 ㉔은 '있으셨다고'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㉔의 '에'는 부사격 조사이다. 그런데 ㉔의 '사용자'는 뒤에 나오는 '편의'라는 체언을 꾸며 주는 것이므로, 관형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형격 조사 '의'를 써서 고치는 것이 적절하므로 '사용자의'로 고쳐야 한다. ③ ㉔은 초고를 쓴 학생이 자신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때 무엇을 먼저 파악하는지를 쓴 내용이다. 3문단의 내용이 키오스크가 도입된 이유에 대한 학생의 추측과 키오스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㉔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리 수록'은 '앞 절 일의 어떤 정도가 그렇게 더하여 가는 것이, 뒤 절 일의 어떤 정도가 더하거나 덜하게 되는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도록'은 '앞의 내용이 뒤에서 가리키는 사태의 목적이나 결과, 방식, 정도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실질적인 교육의

목적이므로, ㉔은 '해결되도록'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㉕ 5문단의 두 번째 문장은 건의가 받아들여졌을 때를 가정하여, 그 가정이 실현되었을 때 어르신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㉔은 '윤택해질 것입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구개음화를 이해한다.

현대 국어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구개음화는 음절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단모음 'ㅣ'로 시작하는 조사나 접사 같은 형식 형태소와 결합하여 'ㅈ, ㅊ'으로 변하는 경우나, 음절 끝소리가 'ㄷ'이고 뒤에 접사 '-히-'가 올 때 'ㄷ'과 'ㅎ'이 축약되어 'ㅌ'이 되고 이것이 구개음 'ㅊ'으로 되는 경우이다. '끝인사'를 [끄친사]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끝' 뒤에 붙는 '인사'가 형식 형태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같이'를 [가치]로 발음하는 이유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ㄷ-구개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② '많지만'을 [만치만]으로 발음하는 이유는 자음 축약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현대 국어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구개음화의 사례가 될 수 없다. ③ '만이'를 [마디]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ㄷ-구개음화'가 일어난 [마지]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④ '결으로'를 [겨츠로]로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연음하여 발음한 [겨트로]가 표준 발음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대 국어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는 구개음화의 사례가 될 수 없다.

12. [출제의도] 현대 국어 시기 이전에 일어난 구개음화 현상을 이해한다.

'김치'의 '치'는 과거에도 초성의 자음이 'ㄷ'이었다. 그러므로 '김치'의 '치'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치'의 본래 모음이 'ㅣ'였기 때문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피동화음이 'ㄷ, ㅌ, ㅊ'인 경우는 'ㄷ-구개음화'에 해당하므로 '딤치'가 '짐치'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구개음화는 'ㄷ-구개음화'에 해당한다. ② '딤치'의 '딤'이 '짐치'의 '짐'으로 변한 것이므로 '딤치'가 '짐치'로 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구개음화는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났다. ④ 언중은 '짐치'를 'ㄷ-구개음화'가 일어난 형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김치'로 교정했을 것이다. ⑤ 'ㄷ' 뒤에 오는 모음이 원래 'ㅣ'가 아닌 다른 모음이었던 단어에는 과거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김치'의 본래 형태가 '딤치'였고 형태소 내부에서의 'ㄷ-구개음화'가 사라진 후에 '니'가 'ㅣ'로 변화했다면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13. [출제의도] 사전을 활용하여 명사형 어미와 명사 파생 접미사의 특성을 이해한다.

'-음¹'의 용례 '믿었음' 뒤에 결합한 '이'는 주격 조사이며, '움²'의 용례 '믿음', '뭍음' 뒤에 결합한 '을'은 목적격 조사이다. '-음²'의 용례 '믿음', '뭍음' 뒤에 결합한 '을'은 목적격 조사로 '-음²'의 뒤에도 '-음¹'과 마찬가지로 격조사가 결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음¹'의 뜻풀이 중 '어미 '-었-', '-겠-' 뒤에 붙어'와 제시된 용례인 '믿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음¹'은 용언의 어간 뒤에 붙는 어미로, '-음¹'이 결합한 말은 용언의 활용형이므로 본래의 품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③ '-음²'의 용례 '그는 서랍에서 종이 한 묶음을 꺼냈다.'에서 '뭍음'을 수식하는 관형어 '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음¹'의 뜻풀이를 보면 '-음¹'은 용언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명사형 어미로서, 제시된 용례인 '믿었음'과 '움²'은 각각 주어인 '그는'과 '그의 판단이'와 어울려 명사절을 형성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음²'의 뜻풀이를 보면 '-음²'는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명사절을 만들 수는 없다.

14. [출제의도] 합성어의 형성 방식을 파악한다.

<보기>에 제시된 순화어의 사례 중 ㉔에서 '깜짝'은 부사, '출연'은 명사로 '부사+명사(체언)' 구성의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㉔에서 '덜-'은 동사의 어간, '지붕'은 명사로 '동사(용언)의 어간+명사(체언)' 구성의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㉔에서 '뜨는'은 동사의 어간 '뜨-'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결합한 용언의 관형사형이며, '긋'은 명사로 '용언의 관형사형+체언' 구성의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㉔에서 '생각'과 '그물'은 각각 명사로 '체언+체언' 구성의 통사적 합성어이다.

15. [출제의도] 사동문의 특성을 파악한다.

제시된 탐구 과정을 보면 A는 주동문은 존재하여도 그것을 사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이다. ㉔이 A에 해당하는데, ㉔을 사동문으로 만든 'X(?)가 그에게 한여름에 더위를 먹었다.'는 비문법적인 문장이기 때문이다. B는 주동문의 서술어로 쓰인 용언의 어간을 어근으로 삼아 사동 접미사를 붙여 파생적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경우이다. ㉔이 B에 해당하는데, ㉔은 '그가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웠다.'와 같이 파생적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C는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수는 있으나, 파생적 사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이다. ㉔이 C에 해당하는데, 서술어인 '모았다(모으다)'의 어간 '모으-'에 '-게 하다'를 붙여 '모으게 했다'와 같이 통사적 사동문으로 바꿀 수는 있으나, '모았다(모으다)'는 어간 '모으-'를 어근으로 삼아 사동 접미사가 붙어 사동사로 파생되지 않으므로 파생적 사동문으로는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16~20] (인문) 강희천,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이 글은 대립하는 가치들 중 어떤 가치를 선택하는가의 문제, 즉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도덕적 원칙주의, 도덕적 자유주의, 도덕적 다원주의 관점의 의의와 한계를 설명한 글이다.

16.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이 글은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면서 그 한계와 의의를 밝히고 있다. 먼저 도덕적 원칙주의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를 밝히려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갈등을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도덕적 자유주의는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어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나,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상위 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적 다원주의는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갈등 상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풍부한 기지와 창조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오답풀이] ①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뿐 절충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③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을 유형별로 나누었으나 그 분류 기준의 문제점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 ④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관점의 변화 과정이나 새로운 관점의 전망 등을 서술하지 않았다. ⑤ 도덕적 갈등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으나 그 분화 배경이나 관점들이 혼재할 경우의 문제점을 서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7.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㉔은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선형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봤고 이에 따라 도덕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㉔은 개인들의 합의를 통해 만든 상위 원리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규범이나 지침을 만들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도덕적 갈등을 해

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도덕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㉔, ㉔ 모두 도덕적 가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오답풀이] ① ㉔은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선형적인 도덕 법칙을 모든 인간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어느 사회에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도덕 법칙이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② ㉔은 개인들의 합의를 통해 만든 상위 원리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상위 원리를 통해 법과 같은 현실적인 규범이나 지침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④ ㉔은 합리적 이성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선형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나 ㉔은 선형적인 도덕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⑤ ㉔은 도덕 법칙을 통해 ㉔은 상위 원리를 통해 만든 규범이나 지침들로 도덕적 갈등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18.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파악한다.

[가]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도덕적 다원주의에서는 어떤 조건에는 우선시되는 가치가 다른 조건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보기>의 ㉔과 ㉔에서 C의 가치 판단이 달라진 것은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도덕적 다원주의에서는 통일된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③ C는 ㉔에서 법을 지키는 것을, ㉔에서는 어려운 형편의 친구를 돕는 것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다. ④ ㉔ ㉔의 가치 판단이 다른 것으로 보아 통일된 지표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건에 따라 서로 가치 판단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⑤ ㉔과 ㉔의 상황에서 모두 두 가치가 지닌 내재적 속성이 상충되고 있다.

1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도덕적 자유주의자는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상위 원리를 바탕으로 현실적 규범이나 지침을 만들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오답풀이] ① 도덕적 원칙주의자의 경우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주관적 욕구나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갑이 범죄를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이다. ② 도덕적 자유주의자의 경우 합의에 의해 만든 상위 원리를 중시하였으므로, 공정한 절차에 따른 합의에 의해 CCTV가 확대가 결정된다면 을은 이를 따라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④ 도덕적 다원주의자의 경우 중재를 통해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것으로 보아, 갑과 을이 타협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볼 것이다. ⑤ 도덕적 다원주의자의 경우 갈등 당사자의 인간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으로 보아, 갑과 을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20.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보장'은 어떤 일이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함을 뜻한다. 잘 보호하여 기쁨을 뜻하는 말은 '보양(保養)'이다.

[오답풀이] ① '규명'은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을 뜻한다. ② '준수'는 전례나 규칙, 명령 따위를 그대로 좇아서 지침을 뜻한다. ④ '모색'은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을 뜻한다. ⑤ '훼손'은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들음을 뜻한다.

[21~24] (현대 소설) 이태준, 「촌뜨기」

이 글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화전을 일구며 생계를 유지하는 산골 주민 장군이를 주인공으로 삼아, 그가

살림을 지키고자 시도하고 실패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소설이다. 제시된 장면에는 근대 초기의 과도기적 사회의 모습과, 사회 변화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실패를 겪는 인물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인 '촌뜨기' 역시 이러한 인물의 처지를 비유한 것이다.

21.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을 인물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제시문에서는 장군이 판 함정에 순사부장이 빠진 일로 경찰서에 들어가 스무 날을 지낸 사건, 장군이 방앗간을 차리려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 등의 추이가 전지적 시점에 따라 요약적으로 서술되어 장군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오답풀이] ① 대화를 통한 인물간의 상호작용이 드러나지 않아 인물의 반응이 드러난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 ② 제시된 부분은 서술자가 장군이 겪은 일을 서술한 것으로 상상 속 장면이라 할 수 없다. ③ 장군이 판 함정을 판 것이나 방앗간을 차리려 시도한 것, 물이 고인 곳을 바라보다가 송사리 떼를 향해 돌을 던진 것 등의 행위가 드러나 있으나 모두 일회성을 지닌 행위들이므로 습관적이라 할 수 없다. ④ 장군이 경찰서에 잡혀간 사건, 방앗간을 차리려다 실패한 사건 등이 드러나 있으나 이에 대한 인물의 의문점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22. [출제의도] 공간적 배경의 의미를 파악한다.

안악굴 주민들은 산지와 관청의 통제로 뫼뻬지 함정이나 여우 땃을 놓을 수 없지만, 뫼뻬지나 노루와 같이 초식만 하며 살아갈 수는 없어 함정을 팠다. 즉, 주민들이 판 함정은 경찰에 저항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오답풀이] ① '자기 아버지 대에까지는 굶지는 않고'라는 구절에 드러나 있다. ② '둘레가 백 리도 더 될 큰 산을 삼정회에서 샳노라고 ~ 허가 없이는 못 놓는다 하고 금하였다'에 드러난다. ③ '산지와 관청에서 이르는 대로만 지키자면'에 드러난다. ⑤ 안악굴 주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고자 '노루의 함정'을 파는 것처럼 금지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23.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는 장군이 겪는 좌절을 근대화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군이 순사부장을 따라간 것은, 노루 함정을 판 것이 발각되어 경찰서에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근대화된 방식에 따르려는 욕구와는 무관하다.

[오답풀이] ② '방앗간'을 차리려는 시도는 화전을 일구거나 산짐승을 잡아먹는 방식으로 살아가던 방식에서 벗어나, 안정된 일터를 꾸려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장군의 노력을 보여준다. ③ '물방아' 형태의 방앗간을 선택한 장군의 방식과 대비되게 '발동기'나 '풍채'를 선택한 '장풍언네'의 방식은 근대화 시기에 적응하기 더욱 유리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④ 장군이 '장풍언네'와 같은 근대적 방식이 아닌 과거와 같은 방식을 고수하려 한 것은 장군의 시대적 흐름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⑤ 장군의 실패를 통해 그가 여전히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는 '촌뜨기' 상태에 놓여 있음이 드러나 있다.

24. [출제의도] 장면의 비유적 의미를 이해한다.

<보기>를 참고하면 [A]에서 장군이 물에서 자신의 상(像)을 바라보는 모습을 장군의 자기 인식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A]에서 장군이 '송사리 떼'를 맞히는 것에 실패한 채 일그러진 '제 얼굴의 그림자'만 마주하는 것은, 장군이 겪어온 일련의 사태가 본질적으로는 결국 '송사리 떼'를 놓친 것과 같은 실패의 과정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한편, 그러한 실패를 겪은 자신을 일그러진 '그림자'와 같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수면'은 사태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매개로, 자기 인식이 이루어진 이후의 상태와 연결 짓기는 어렵다. 더구나 앞서 제시된 장군의 방앗간 실패에 대한 회상을 고려할 때 '수면'을 평온함의 정서와 연결 짓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② '꿈꾸듯 물만 내려다보고 섰던'은 '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얼굴을 비쳐보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이후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순간 '물'을 통한 자기 인식이 이루어졌으리라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이를 자기 인식이 중단된 순간이라 해석할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③ 자기 인식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단서는 찾을 수 없다. '몽우리들이 떨어진 것은 앞서 겪은 실패의 상황에 대해 장군이 지닌 부정적 정서의 표출, 혹은 '송사리 떼'를 잡기 위한 시도 등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⑤ '송사리 떼'를 잡고자 했으나 '한 마라도 뜨지 않'았다는 것은 장군의 행위가 실패한 상태를 묘사한 것으로, 장군의 안악굴 생활의 어려움이나 방앗간 실패의 과정 등과 관련지어 해석할 때, 장군이 자신과 관련된 사태의 본질을 실패라고 인식한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25 ~ 28] (고전 소설) 작자 미상, 「소대성전」

명과 호국의 전쟁에서 백성들과 명나라를 위로부터 구한 영웅 소대성의 일대기를 다룬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소대성은 명나라와 호국의 전쟁에 참전하여 탁월한 무공을 바탕으로 천자와 명나라를 위기에서 구한다. 본문에는, 소대성이 호왕에게 사로잡혀 통곡하며 쓰러진 천자를 구해내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25.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제장 군졸의 머리 추풍낙엽일네라 뉘 능히 당하리요?', '명제는 함정에 든 범이라 어찌 망극지 아니하리요?', '용의 울음소리가 구천에 사무치는지라 하늘이 어찌 무심하리요?' 등과 같은 구절에서 작품 속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감상이나 느낌, 논평을 드러내는,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다.

[오답풀이] ① '일진이 고요하여 ~, '화광이 충천한 가운데~', '날이 이미 밝으니~', '좌우에 태산 막혀 있고~' 등과 같은 표현에서 배경이 일부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 표현들은 사건 진행 상황을 드러내는 데에 사용되고 있어 이를 통해 해석적 분위기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이때에 원수가~', '이때에 호장 체담이~' 등에서 장면 전환이 드러나지만 이는 인물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작품에서는 비극적 결말을 위해 사용된 '상징적 소재'를 찾기 어렵다. '청총마' 등을 일부 상징적 소재로 볼 수 있으나 이 소재를 활용하여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장면이나 상황이 변화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는 과거와 현재 사건의 대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본문에서는 갈등의 원인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6. [출제의도] 인물의 행위에 담긴 의도를 파악한다.

'원수 장안으로 가 ~ 풍우 같은지라'를 통해 대성이 장안에 도착한 후 호왕이 자신을 속이기 위해 곁한을 장안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호왕이 또한 계책을 생각하고~' 이후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호왕이 자기가 장안을 치면 명제가 장안을 구하기 위하여 소대성을 구원병으로 보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대성을 장안으로 유인하여 명제 곁에서 '치운 후'에 '명제'를 '사로잡'겠다는 계책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호왕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곁한에게 장안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 ② '이 늙이 여러 날 나지 아니하매~잔명을 보존케 하라.'에서는 장안을 구하기 위해 천자가 대성을 장안에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때에 호장 체담이 호왕께 고하되~'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호왕이 '체담'의 보고를 듣고 명진을 공격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원수 천자를

모시고~ 어찌 슬프지 아니하리요?'에서 '장졸'들의 죽음에 대한 천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

27.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소대성이 '앞에 큰 강이 가렸으니 건넌 길이 없는지라.'라고 분기충천하여 말하는 것은 '공중'에서 들려온 '대진으로 가지 말고 황강으로 가라.'라는 말이 옳지 않음에 분기충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작품의 흐름을 고려할 때 대성이 '공중'의 말에 따라 '황강'으로 왔기 때문에 건너편 강가에 천자가 었드려 있는 것을 보고 천자를 구원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천상계의 조력을 받아 위기를 해결하고 있는 영웅으로 소대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소대성이 분기충천하는 모습을 통해 소대성이 천상계의 질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명진이 불의의 난을 만나니 제장 군졸의 머리 추풍낙엽일네라.', '강촌 백성들이 난을 피할 일이 없는지라.'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 장졸들의 죽음, 난을 만난 백성들의 모습 등이 드러나며 이는 명나라의 위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② 호왕의 급습을 받은 명제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여' 탄식하는 장면 등에서 명나라의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지배층의 모습이 나타난다. ④ 항서를 쓰라는 호왕의 요구에 '차마 아파 못할네라.'라고 통곡하는 모습과 소대성이 '칠성검'으로 호왕을 단칼에 죽이고 천자를 구원하는 모습을 천자와 소대성을 대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청총마가~떨어지느니라.'와 같은 언급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호왕을 제압하는 소대성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28. [출제의도] 작품 속 인물의 발화 의도를 이해한다.

㉠에서 천자가 '호왕이 소장의 ~ 짓밟고자 하나이다.'라는 제안을 호왕이 '비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추측을 바탕으로, ㉡에서 대성은 '천하를 반분하'여 대성에게 주고자 하는 제안을 군신과의 도리를 근거로 들어 수용하지 않고 있다.

[오답풀이] ① ㉠에서는 실행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찾기 어려우며, ㉡에서 대성은 천자의 제안을 거부하고는 있지만 이를 위해 실행을 위한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에서는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서술을 찾기 어려우며, ㉡에서 대성은 '신의 공이 아니오매~'라고 언급하면서 '천하를 평정함'이 가능했던 것이 '폐하' 덕분임을 드러내고 있지만 천자의 제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에서는 단점에 대한 서술은 찾기 어려우며, ㉡에서 대성은 '폐하의 덕'과 같은 천자의 장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천자의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에서 천자는 '잠깐 기다리라'와 같이 말하며 제안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드러내지만 그 제안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다. ㉡에서 대성은 '소신으로 하여금 후세에 역명을 면케 하옵소서.'와 같이 말하며 제안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거절하고 있다.

[29 ~ 32] (갈래 복합) 박인로, 「독락당」/조지훈, 「방우산장기」

(가) 박인로, 「독락당」

이 글은 박인로가 회재 이언적의 유적인 경주 옥산서원의 독락당을 찾아가 지은 가사로, 회재의 유지를 흠모하고 선현의 풍모를 기리는 정을 노래하고 있다.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은 작품의 초반부로, 화자가 독락당과 양진암, 관어대를 둘러보면서 이언적의 자취를 더듬으며 그의 풍채와 덕행을 추앙하는 부분이다.

(나) 조지훈, 「방우산장기」

이 글은 조지훈이 자신의 거처를 '방우산장'으로 명명한 뜻을 밝힌 수필이다. 작가는 '집이란 물건은 본디 일정한 자리에 있는 것'이기에 '집 이름도 특성의 고

유명사가 아닐 수 없'다고 전제한 후, 이와는 반대되는 자신의 개성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방우산장'이라는 집의 명칭이 하나의 공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방우산장의 이름에 값할 집'은 '따뜻한 친구의 집', '차운 여관의 일실', '야숙의 담요 한 장'으로부터 '무변한 창공'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영혼이 깃들일 '나의 육신'임을 밝히면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정신을 드러내고 있다.

29.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을 이해한다.

(가)에서는 '~네', '~구나', '~도다'와 같이 감탄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영탄적 어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옥한 경치는 견줄 데 전혀 없네', '변함없는 경치가 그 더욱 반갑구나', '성현의 일 도모 하시도다'와 같이 영탄적 어조가 사용된 구절에서 독락당과 그 주변의 자연 경관 및 이연적이 남긴 자취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독락당 주변의 자연 경관은 이연적과 관련지어 여전히 '변함없는 경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나, 이것이 인간사의 한계를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이연적의 자취를 좇는 화자의 모습은 과거 회귀적 지향을 드러낸 부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현실의 모순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④ 화자는 독락당, 양진암, 관어대를 둘러보며 소회를 드러내고 있을 뿐, 치밀한 관찰에 근거하여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공자의 제자들인 안회, 증삼, 자유, 자하라든가 사마온공, 엄자릉과 같은 역사적 인물들이 언급되고 있으나, 화자가 이들을 통해 상황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30.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

(나)의 서술자는 '불행하게도 한 장의 현판을 걸었던 들 방우산장은 이미 나의 집이 아니게 되었을 것'이라 진술하면서, 자신의 이러한 뜻이 사후 오해를 받게 될 경우에 대한 우려를 ㉠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에서는 '수많은 긴 대나무 시내 따라 둘러 있'는 독락당 외부의 자연 경관과 '만 권의 서책이 네 벽에 쌓여 있는 내부의 모습을 나란히 제시하여 독락당을 보고 받은 인상을 개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에서는 '난초 향기에 든 듯'과 같이 후각적 심상과 비유를 결합하여 관어대에서 보는 경치를 그려내고 있다. ③ ㉢에서는 '갈매기들'을 인격체로 간주하여 '문노라', '옛일을 아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여기서 '옛일'은 이후에 제시된 '엄자릉'과 관련된 고사를 가리킨다. ④ ㉣에서는 '고루거각'과 '용슬소옥'을 대조하면서 '집'이라는 대상에 대해 '본디 일정한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통념을 드러내고 있다.

31.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의거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가)의 화자는 관어대에서 '몇몇 옛 자취'를 보며 '언비어약을 말없는 벗으로 삼아/독서에 골몰하여 성현의 일 도모하시'던 이연적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이는 화자가 관어대에서 이연적이 도모하던 '성현의 길'을 흠모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자가 '성현의 일'을 이루지 못한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깨우친 것을 혼자서 즐기도다'라는 구절은 독락당의 이름에서 '독락'이 지닌 의미에 부합하면서 독락당이 학문 수양 중심의 공간임을 부각하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양진암을 바라보며 '내 뜻도 뚜렷하다'고 진술함으로써 이연적이 양진암을 통해 드러낸 후학 양성의 뜻에 대한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④ (나)의 서술자는 자신의 집에 붙인 이름인 '방우산장'에서 '산장'이라는 이름의 근거를 자신이 '본디 산에서 나고 또 장차 산으로 돌아갈 자이기 때문'이

라 밝히며, 자신이 궁극적으로 '산'으로 표상되는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함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에서는 궁극적으로 '내 영혼이 깃들인 곳집'이야말로 '방우산장의 이름에 값할 집'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자신의 궁극적 공간이 '영혼', 즉 정신의 공간이며 그 이름 역시 정신적 지향의 표상임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32. [출제의도] 서술 대상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나)의 서술자는 '나의 방우산장은 원래 특정한 장소, 일정한 건물 하나에만 명명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과 함께, '따뜻한 친구의 집'으로부터 '무변의 창공'까지도 그 이름에 값할 집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는 곧 '방우산장'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공간이 하나의 물리적 실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화자가 둘러보는 공간이 독락당, 양진암, 관어대로 바뀌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명칭 변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의 공간은 이연적이 직접 명명한 것으로 정해지고 있으며, (나)의 공간에 대한 명명은 서술자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다수의 인정을 받는 단계를 거쳤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가)에서는 독락당과 그 주변 공간이 이름의 의미에 부합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나)에서는 명명에 부합하는 공간이 다양한 외양을 지닐 가능성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나)에서 공간의 외양과 명명의 근거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나)의 공간에 대한 명명은 작가의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는 그렇지 않다.

[33 ~ 37] (과학) 최문근, 「의약화학」

이 글은 약이 생체 내에서 기능하는 방식을 수용체와 리간드의 작용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약은 생체의 리간드와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의 성분을 포함하며, 특정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로 약효를 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병원체나 생체에 작용하는 약을 예로 들며, 그러한 약이 생체 내에서 생물학적 효과를 내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두 가지 이상의 약을 함께 복용할 경우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과 장기간 약을 남용할 경우 내성이 생길 수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

33.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글에서 대사 작용과 관련한 약으로 설파제가 제시되어 있다. 설파제는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박테리아의 특성과 관련되며, 약효를 내기 위해 박테리아가 필요로 하는 엽산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박테리아가 엽산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약효를 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대부분의 약은 약효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많으며, 두 가지 이상의 약을 함께 복용하면 이차적인 약효가 한층 커지는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약은 생체에서 수용체와 결합하여 신경 자극이나 화학 반응과 같은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약은 생체에서 수용체와 결합하여 유익 작용 및 유해 작용을 나타내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약은 특정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를 인위적으로 생체에 증가시키며,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작용에 의해 생체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3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약은 특정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를 인위적으로 생체에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생체에서는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수가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수

준 이상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리간드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할 수 있는데, 이때 수용체에 의해 리간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생체에서의 리간드는 수용체와 결합하는데, 이 경우 구조에 영향을 받는 것은 리간드라고 설명하고 있다. ④ 약은 생체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약효를 내는 리간드이며, 이 경우 약은 생체의 수용체와 친화성을 갖는 리간드로서 기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수용체와 친화성을 갖는 리간드가 생물학적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약은 이러한 리간드와 유사한 화학적 구조의 성분을 포함하게 된다.

35.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파악한다.

인간과 박테리아는 공통적으로 대사 과정에 엽산을 필요로 하며, 설파제는 엽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내에서 설파닐아미드가 되어 박테리아의 작용을 방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항바이러스제는 DNA 복제 과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뉴클레오타이드와 유사한 구조의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설파제는 체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쳐 설파닐아미드가 되고, 결과적으로 파라아미노벤조산이 결합할 수용체에 먼저 결합함으로써 약효를 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설파제는 박테리아가 엽산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죽게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항바이러스제는 DNA 복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설파제는 엽산과 관련한 인간과 박테리아 간의 차이를, 항바이러스제는 증식할 수 있는 생체의 세포와 달리 스스로는 증식하지 못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자료를 참고하여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SNRI 항우울제는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접 틈새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농도가 높아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SNRI 항우울제가 후연접 뉴런에 지속적으로 흡수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우울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은, 보통 후(後)연접 뉴런 수용체에서 기능을 다하고 전(前)연접 뉴런에 재흡수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항우울제는 연접 틈새에서 신경전달물질의 부족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약효를 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약을 장기간 남용하게 되면 수용체의 민감도가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TCA 항우울제는 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신경전달물질의 흡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SNRI 항우울제는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후연접 뉴런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약효를 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글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관련지어 이해한다.

메피라민은 알레르기와 염증에는 효과가 있으나 위산 분비 조절에는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다. 이는 히스타민이 알레르기와 염증의 발생에 관여하는 수용체와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 모두와 친화성을 갖는 것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새 항히스타민약은 메피라민과는 달리 위산 분비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메피라민은 알레르기와 염증과 관련한 일차적인 약효를, 새 항히스타민약은 위산 분비와 관련한 일차적인 약효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히스타민과 달리 메피라민은 알레르기

와 염증의 발생에 효과를 내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위산의 분비와 관여하는 수용체는 따로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메피라민과 달리 히스타민은 두 수용체 모두에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② 메피라민은 알레르기와 염증 발생과 관련된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지만, 위산 분비와 관련된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알레르기와 염증 발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메피라민과 새 항히스타민약은 히스타민이 관여하는 증상과 관련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두 약은 히스타민과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새 항히스타민약은 위산 분비 조절에 효과가 있으므로 메피라민보다 위산 분비에 관여하는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을 것이다.

[38~42] (사회) 정운찬·김영식, 「거시경제론」

이 글은 거시 경제학이 각 학파 간의 논쟁을 통해 발전해 온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시장의 가격 조정 속도에 대한 각 학파 간의 관점 차이로 인해 단기와 장기, 가격의 조정 속도,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등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이 발전해 왔다.

38.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파악한다.

고전학파는 경기 변동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반면, 새고전학파는 기술 변화가 경기 변동을 유발한다고 보았으므로, 경기 변동의 존재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5문단을 통해, 새고전학파는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 선택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바탕으로 거시 경제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을 뿐, 미시적 분석을 통해 가격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을 통해, 케인즈는 임금 경직성이 극심한 고용량의 변화를 야기한다고 보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을 통해, 케인즈는 가격이 신속적으로 변화하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⑤ 6문단을 통해, 새케인즈학파는 메뉴 비용의 존재로 인해 제품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는 속도가 느리다고 보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3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2문단을 통해, 고전학파는 시장이 항상 균형 상태에 있다고 주장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물가가 P₁에서 P₂까지 신속적으로 변화하여 국민 총소득이 Y*인 장기 균형이 항상 성립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고전학파는 AD 곡선이 이동하더라도 국민 총소득이 Y*로 일정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③ 케인즈학파는 단기에는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가 P₁에서 P₂까지 변화하지 않아 국민 총소득이 장기 균형인 Y*를 이탈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④ 케인즈학파는 물가가 완전히 경직적이라면 AD 곡선이 이동할 때 물가가 P₀에 고정되어 변하지 않고 이로 인해 국민 총소득이 Y₁에서 Y₂까지 변화할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⑤ 케인즈학파는 경기 안정화 정책이 유효하다면 물가가 P₀에 고정되어 완전히 경직적이라도 정책에 의해 총수요를 변화시켜 국민 총소득이 장기 균형인 Y*로 일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40.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5문단을 통해, 새고전학파는 K국 정부의 확장적 통화 정책 발표가 국민들의 합리적 기대에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반응도 달라지리라 판단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K국 정부의 확장적 통화 정책의 효과 분석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경제학자 갑이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 2019년은 이미 지난 시기이며 이때의 통화량은 지난해 12월 31일에 발표되었으므로 새고전학파는 확장적 통화 정책이 발표되더라도 K국 국민들의 반응은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할 것이다. ③ 새고전학파는 새로운 정보가 전해지면 기존의 정보에 추가된 정보를 반영하여 합리적 기대를 형성한다고 판단하므로, 2020년 이전의 자료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다. ④ 경제학자 갑은 확장적 통화 정책이 다음 달의 소비를 증가시킨다고 판단했으므로 2020년 12월 30일 이전에도 K국 국민들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현재는 정책 시행 전이므로 통화량이 변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새고전학파는 경기 변동의 원인이 총수요 변동이 아닌 기술 변화라고 판단하므로, K국 정부의 인위적인 통화량 조절로 총수요 변동이 유발되더라도 이것이 불황 등의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41. [출제의도] 글에 담긴 핵심적인 정보를 파악한다.

기업은 메뉴 비용과 제품 가격을 변화시키므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비교하여 제품 가격을 변화시키므로, 가격 변화로 인해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 가격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업은 높은 효율 임금을 지급하여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므로, 시장 상황에 따라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임금을 낮추지 않고 높은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이다. 요컨대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품 가격이나 임금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가격 경직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총수요 관리 정책은 여전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③ 제품 시장과 노동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행동을 할 것이며, 이러한 기업의 행동 차이가 가격 경직성을 제거한다는 근거는 [A]에서 찾을 수 없다. ④ 메뉴 비용의 크기가 커져도 제품의 가격 변동성이 커진다면, 이는 가격 신속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⑤ 기업이 노동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노동의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시장의 균형 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은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이직과 태만을 방지하려 할 것이다.

42.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를 추론한다.

‘경기 변동을 제거할 수’는 ‘호황이나 불황의 발생을 없앨 수’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시장 균형이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상태이므로 적절하다. ② 가격 경직성이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라 가격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③ 케인즈학파는 가격 경직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통해 총수요를 관리함으로써 시장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적절하다. ⑤ 경제 주체는 자신이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므로 적절하다.

[43~45] (현대시) (가) 한용운, 「달을 보며」/(나) 박남준, 「이사, 악양」

(가) 한용운, 「달을 보며」
이 글은 달을 보며 부채하는 대상인 ‘당신’을 그리워하는 시이다. ‘당신’을 생각하며 ‘뜰’로 나온 화자에게 ‘달’은 점점 ‘당신의 얼굴’로 보인다. 이 시는 화자의 얼굴 역시 ‘달’이 된다고 표현하여 ‘달’을 매개로 화자가 ‘당신’과 합일을 이루고자 함을 보여주고 있다.

(나) 박남준, 「이사, 악양」
이 글은 ‘결국 남쪽’으로 이사한 화자가 여전히 ‘밥상머리 맞은편’에 앉을 대상이 부채하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내용의 시이다. 화자는 ‘별들’과 ‘불빛들’이 ‘한 몸’이 되는 것을 보며 ‘부럽기도 했다’나 시간이 흐를

수록 점차 ‘무심해’진다. 이 시는 화자가 ‘길고 먼 꿈을 청한다’라고 마무리하며, 화자가 결핍과 부채의 삶을 면면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43. [출제의도] 두 작품의 표현상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에서는 ‘-습니다’, ‘-니다’와 같은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는 공감각적 심상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④ (가)는 ‘나의 얼굴은 그믐달이 된 줄을 당신이 아십니까?’와 같이 ‘당신’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⑤ (나)에서는 ‘검던 머리 더욱 희끗거리고/희끗거리며 날리는 눈발을 봐도’에서 연쇄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으나, (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44. [출제의도] 주제 의식을 바탕으로 시어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이따금’은 ‘묻기도 했다’와, ‘아직도’는 ‘낯선’과 의미상 짝을 이룬다. ‘이따금’은 화자가 대상의 ‘부채의 이유’를 상기하도록 하는 역할을, ‘아직도’는 화자가 ‘남쪽 악양’에서 느끼는 낯섬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당신’이 ‘하도’ 그리워서 ‘뜰’로 나왔고, ‘뜰’로 나와 ‘달’을 ‘한참’ 바라본다. 여기서 그리움의 크기만큼 화자가 달을 바라보는 행동의 지속 시간이 길어짐을 알 수 있다. ② 화자에게 ‘달’이 ‘차차 당신의 얼굴’처럼 보이더니 ‘역력히’ ‘넓은 이마, 둥근 코, 아름다운 수염’처럼 보인다는 데서, 화자가 외부 사물인 ‘달’을 ‘당신의 얼굴’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③ ‘어쩌다’는 ‘생선 한 토막’을 굶는 일과, ‘늘’은 ‘비어 있던 자리’와 관련된다. ‘어쩌다’와 대비되는 ‘늘’은, 어쩌다 생활에 소소한 변화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 ‘내 뼈를 발라 살점 없어줄 사람’은 여전히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⑤ ‘나눌 수 없는 우주의 경계로 인해 밤마다 한 몸이 되’는 자연물을 부러워하던 화자가, ‘해가 바뀔수록’, 즉 ‘검던 머리’가 ‘더욱 희끗거리’릴수록, ‘희끗거리며 날리는 눈발’에도 ‘점점 무심해’진다는 표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감정의 변화가 나타난다.

45. [출제의도] 내적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가)에서는 화자가 ‘간 해에는 당신의 얼굴이 달로 보이는’ 경험을 하였고, ‘오늘 밤에는 달이 당신의 얼굴이’ 되는 경험을 한다는 데서, 과거에는 화자가 당신과 함께였고 현재는 그렇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에서는 ‘아랫마을 밤 개’가 ‘경경거리며’ 화자에게 ‘그 부채의 이유’를 묻고, ‘겨울바람’이 화자가 사는 곳 ‘처마 끝을 풀썩 뒤흔든다’ 가는 데서, 사람 사는 곳에 사람이 들지 않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의 화자는 ‘뜰’에 나와 ‘달’을 바라보며 부채하는 ‘당신’을 떠올리고, (나)의 화자는 ‘어쩌다 생선 한 토막’을 구웠으나 이를 함께 나눌 존재가 ‘밥상머리 맞은편’에 존재하지 않음을 떠올린다. ② (가)에서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넓은 이마 둥근 코 아름다운 수염’으로, (나)에서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은 ‘내 뼈를 발라 살점 없어줄 사람’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④ (가)의 3연에서 화자는 ‘당신의 얼굴이 달이기에 나의 얼굴도 달이 되었습시다’라고 표현하며 자신도 ‘당신’과 같이 ‘달’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자연물 즉 ‘달’을 매개로 하여 부채하는 대상과 합일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에서 화자는 ‘별들과 산마을의 불빛들’이 ‘밤마다 한 몸이 되고는’ 하는 모습에 대해 ‘부럽기도 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늘 비어 있던 자리’가 ‘달라지지 않’은 자신의 처지와 달리 합일을 이루는 자연물에 대해 느끼는 부러움을 드러내고 있다.